

만꾸마리 아가씨의 커피

김현구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연구단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차 한 잔 나눌 상대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차 한 잔에 새로운 인연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볼태울 수도 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차는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지만, 혼자 고독하게 마시는 차 한 잔은 우리 삶의 여백을 채워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와 녹차를 비롯해 홍차, 유자차, 울무차, 치커리 차 등 많은 차가 개발되어 쉽게 구입해 즐길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어떤 차를 마시든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기호 식품이 되었다.

나는 두 해 전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고자 떠난 히말라야 트레킹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웁빃 계류(溪流)의 히말라야 계곡을 오르며 고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롭고 이국적인 풍광도 좋았지만 만꾸마리 아가씨가 끓여준 커피 맛은 잊을 수가 없다. 해발 고도 약 4,000m에 이르면 조그마한 소말레 마을을 지나게 되고 페리체 마을에 이르기 직전 트레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드래곤 랫지(Dragon lodge)가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랫지가 침실과 다이닝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랫지는 침실이 없고 오막살이집처럼 작지만 정감이 가는 곳이었다. 우리 히말라야 원정단은 이 랫지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이곳의 사장인 만꾸마리 아가씨는 티 없이 자란 눈빛이 맑은 여인이다. 그 당시 스물두 살이라니 우리로 보면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지만 드래곤 랫지에서 혼자 차를 팔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눈빛에 묻어나는 선한 인상도 좋았지만, ‘만꾸마리’라는 그녀의 이름 역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자’란 뜻이다. 만꾸마리 아가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은 것은 그 아가씨가 우리 히말라야 원정단 단원에게 끓여준 커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커다란 주전자에 찻물을 끓이기 위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말린 야크 똥을 얹어놓는다. 주전자는 그을음으로 까맣게 되었고, 나와 우리 원정단 단원들은 비록 이 랫지의 손님이지만 불 지피는 것을 도와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따끈한 차 한 잔을 기다렸다. 나뭇가지와 야크 똥으로 불을 지피는 동안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가 따스한 감성을 일깨웠다. 이국적 분

위기의 히말라야 계곡에서 만꾸마리 아가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한 잔은 삶의 여백을 채워주는 기쁨이었다. 그 아가씨의 맑은 눈빛은 덤이었고 즐겁게 일하는 만꾸마리 아가씨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다.

커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일본 아이치 현 암센터연구소 다케자키 도시로 연구팀은 역학조사를 한 결과 매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간암 예방, 혈압 강하, 다이어트, 입 냄새 예방 등 많은 효과가 있어 현대인은 커피를 즐겨 이용하고 또 애용하고 있다. 커피와 더불어 우리가 많이 마시는 것이 녹차이다. 녹차의 카테킨(Catechin) 성분은 암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동맥경화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비만을 억제하고 항충치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호음료로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차 추출물은 기능성 소재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커피, 녹차 같은 기호 식품은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생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대부분 커피나 녹차 등 차를 즐기고 있다. 차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 고독함을 느끼며 마셔도 좋고 여유롭게 마셔도 좋은 기호 식품이다. 점잖은 자리에 편하게 앉아 마시는 차도 좋고 필자처럼 히말라야 계곡에서 불을 지피며 시골 분위기를 느끼면서 마시는 차도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숲 속의 산사(山寺)에서 스님이 만들어주는 녹차 또한 마음을 정화해주는 좋다. 녹차는 먼저 눈으로 차의 푸른 색깔을 보고 귀로는 물 끓는 소리와 차 따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코로는 차향을 음미하며 손으로는 찻잔의 따스함을 느끼며 입으로는 차 맛을 보게 된다. 다도는 행다례(行茶禮)라 하여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림을 배우고 삶의 여백을 만들어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차 한 잔은 150ml 안팎의 액체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의 큰일과 국가 간의 거래도 차 한 잔으로 시작되고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필자도 사반세기 전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차 한 잔으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사랑을 키워갔다. 이처럼 차 한 잔은 작지만 큰일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내린다. 커피를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커피가 내려지면서 연구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을 더욱 즐긴다.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두 손으로 잡으면 찻잔의 따스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 좋고, 한 모금 마시면 입안 가득 퍼지는 커피 향에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가볍게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다. 차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담 없이 내놓을 수 있어 좋으며,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시면 위로가 되어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시면 한층 행복해서 좋다. 또 잊힌 첫사랑을 회억(回憶)하며 마셔도 좋고 이국적인 환경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마시면 더욱더 좋다. 같은 차라 하더라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면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소와 계절을 달리하여 마시면 차의 향과 분위기가 달라진다.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맛본 눈빛이 맑은 만꾸마리 아가씨의 커피를 잊지 못할 것이다.

